**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

**10/13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5:6**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엡 3:14-19**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12:30)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교통을 하며,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시 73:25, 25:14).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을 뿐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고 완전히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166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성경의 깊은 사상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성경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부부 중 남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긴 과정을 거치신 후에 결국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부부 중 여자는 단체적인 한 사람, 곧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구약과 신 약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 긴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단체적인 인격은 결국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 거룩한 로맨스는 구약 전체에 걸쳐 거듭 계시된다. … 하나님은 … 수차례 자신을 남편으로 언급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아내로 언급하셨다(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 신언자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남편이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아내라고 말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결혼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아내에게서 이것을 바라는가?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큰 인물이나 위인으로 생각하여 숭배하는 태도로 여러분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 어리석군요! 나는 이런 경배자가 필요 없소. 나에게는 나를 안아 주고 입을 맞추어 줄사랑스러운 아내가 필요하오. 당신이 나에게 가벼운 입맞춤이라도 해 준다면, 나는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것 같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성경 안의 많은 절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는가?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완전한 체계를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것에 질렸다. 나는 너희의 희생 제물에 진력났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외롭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인 너희가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가는 로맨스 이상의 것이다. 아가는 환상적인 로맨스이다. … 아가는 사랑에 빠진 두 연인에 대해 말한다. … 아가에서 우리는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진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 해 주었으면. 나는 이것에 목마르답니다.” 곧바로 사랑하는 이가 곁에 오고, ‘그이가 ‘당신으로 바뀐다(아 1:2-3). “당신의 이름은 달콤하며,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가르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는 목사나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장로나 심지어 사도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이끌어 줄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이 어떠한 로맨스인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 14-17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

**10/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2, 7-11**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 16:1**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

복음서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기록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복음서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셨음을 알려 준다는 것을 주의해 본 적이 있는가(마 9:15, 막 2:19, 눅 5:34, 요 3:29)? 그리스도는 신부를 얻으러 오셨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침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증가한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한다고 말했다 (요 3:30). … 신부는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 묘사된다(엡 5:25-32, 고후11:2). … 서신서들이 밝혀 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으로 계시되시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배필, 그분의 아내로 계시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 19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결혼 잔치를 누리실 것임을 보며,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임을 본다. …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완결은 이 우주적인 부부, 곧 남편과 아내이다.

더욱이 성경은 두 인격으로 이루어진 이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한다 (창 2:24, 엡5:31).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다. 그들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와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은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엡 4:15) 아내인 교회는 몸이다(1:22-23). 결국 이 둘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한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는 아내로 제시되며,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 19-20쪽)

결국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 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러한 천 년은 하루(벧후 3:8), 곧 결혼식 날로 여겨질 것이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신선한 초기 단계일 것이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완전히 완결되고 완성될 것이다(계 21:1-3, 9-10).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이기는 이들 외에도 상당한 수의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지만, 천년왕국 이후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성숙될 것이다. …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되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에 성숙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시대에 성숙되는 과정은 매우 혹독할 것이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과 합하여져,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천년왕국 동안의 새 예루살렘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기는 이들과 합하여진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아내일 것이다. 결혼식 날에 아내는 신부이지만,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라 다만 아내일 뿐이다. … 영원 미래에 새 예루살렘에는 왕국 시대 동안의 징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추가될 것이다 (계 21:2, 12, 14).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가장 충만한 정도에까지 영원토록 표현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1:10-11).(이기는 이들, 6장, 116-11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10/****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3:2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 11:18**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예 신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계 14: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살전 4:15-16**  
**15**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전 3:14-15**  
**14**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15** 그 일이 불타 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어린양이심을 밝혀 준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어린양과 신랑 둘 다로 제시되신다. 어느 날 침례자 요한은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요 1:29)라고 선포했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러 어린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 후 침례자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심을 시사했다(요 3:29). …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어린양이시자 신부를 얻으러 오신 신랑으로 계시되신다. …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신랑이신 것은 결혼을 위한 것이다. 구속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결혼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취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29-130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얻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시자 장차 오실 신랑이심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결혼식을 하셔야 한다. 어린양의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일 것이다. 이것은 구속하신 분과 구속받은 이들의 결혼식일 것이다. 성경의 끝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본다. 이 성은 아내이고(계 21:2, 9-10),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우리의 위치는 신부의 위치이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위치는 신랑의 위치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신다. 이렇게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갈 것이다(마 25:1). 신부와 신랑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때 결혼식을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큰 무리의 찬양이다. 7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가리킨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 …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이러한 방면을 위해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스도는 각각의 믿는 이와 개별적으로 결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보다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건축되고 함께 맞추어져서 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금등잔대인 교회(계 1:20)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나 악을 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생명나무,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든, 아니면 교회 집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우리가 살아 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순금으로 상징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0-132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0/16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엡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5:24-25, 31-32**  
**24**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31**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 1:10-11**  
**10** 장신구로 땋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11**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

우리는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한다. 이 비유에서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 현명한 처녀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들의 혼이 충만하게 되고 적셔진 이들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 어린양의 결혼 잔치를 누릴 것이다(마25:10). 이것은 역대로 하나님의 일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임을 가리킨다. …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과 하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조성해 넣으신다. 우리가 주님께 그분 자신을 우리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더 많이 허락해 드릴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있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에 속한 맛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실 때 우리는 자랄 수 있다. 하나님의 건축과 우리의 성장은 신부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건축되었고, 자라서 성숙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4-135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 준비되었다는 것(비교 24:44)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그분의 건축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한 가지이다. 오늘 교회는 장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고, 완전히 자라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시는 건축의 일을 통해 자란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란다. … 우리가 자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건축이다 (엡 4:12-13).

의심할 바 없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 그러나 신부는 빨리 준비될 수 없다. 이 준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 이러한 준비에는 단체적인 건축의 일이 포함된다. 신부를 이루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하고 계시는 최우선적인 일은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신실한 남은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기독교의 타락을 이기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분의 결혼식을 위해 그분에 의해 완전히 준비될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의 기쁨과 만족이 될 것이다. 신부의 준비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강화된 일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가 합당하게 단장됨으로써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단장하시어 그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은 완전히 준비되고 단장된 그분의 신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양의 결혼 잔치가 다가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태초에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혼자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은 좋지 않다(창 2:18). 그분은 배필을 갈망하신다. 예수님은 단지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께는 신부가 필요하시다(요 3:29).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순수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한다(고후 11:2). 에베소서 5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런 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본다(19:7).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우주적인 결혼일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는 혼자가 아니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혼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5-13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0/17 금요일**

***아침의 누림***

1. **계 19: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2. **빌 3:9-15 (9-11, 14)**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3.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4.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 옷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 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본성을 가리키고, ‘빛나고’라는 단어는 표현을 가리킨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 의는 우리의 구원(고전 1:30)을 위해 받은 의(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빌 3:9),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낸, 우리의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7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에는 그리스도 자신인 의로 충분하다. 이 의는 단수형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언급된 ‘의’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이 절에 언급된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시는 의로운 행실, 매일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의 속생명이 우리가 입게 되는 흰 세마포 옷을 이루어 낸다. 잔치에 가려면, 특별히 결혼 잔치에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려면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는 우리를 덮는 겉옷이 필요하다. 이 겉옷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게 입힌 겉옷이다. 탕자는 돌아와서 … 자신이 아버지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15:21).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15:22)라고 말했다. …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첫 번째 겉옷이 있다. 이 겉옷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롭다 함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이 필요하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보상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한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게 한다. … 두 번째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 옷은 사실상 우리가 의존하여 살고, 또한 우리가 살아 내는 그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으로 설명된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 잔치에 온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 왕은 그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라고 말했다. 그 하객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마 22:13) … 고대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특별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려면,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 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 주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로 결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하는 결혼 예복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하는 예복과 결혼 예복 둘 다가 필요하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37-13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단계, 1권, 17과*

**10/18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계 19: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2. **마 22:2, 4**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4**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라고 하였으나,
3. **시 45:9-15**  
   **9** 왕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여인들 중에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을 두르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10** 딸이여! 듣고서 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의 백성과 그대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십시오.  
   **11** 그리하면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대의 주님이시니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12** 두로의 딸이 선물을 가져오고 백성 가운데 부자들이 그대의 은총을 구할 것입니다.  
   **13**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14**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15** 그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인도를 받아 왕의 궁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어린양의 신부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 잔치이다.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 시대에 주님께 다루어진 후에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기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의 누림 안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양의 신부일 것이다. … 결혼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로서 천년왕국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갖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42-143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부름받는 것과 선택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주님을 따라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이들은 부름받을 뿐 아니라 선택받은 이들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선택받으리라는 확신은 아직 없다. … 우리는 휴거된 후에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다. 선택받은 이들만이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어린양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 다음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손실을 입을 것인데, 그 절은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구원은 받았지만 손실을 입은 이들은 분명 결혼 잔치를 놓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서 잔치할 것이다(계 19:7, 9). 유일하고 우주적인 그 결혼 잔치는 천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교회는 그 천 년 동안 신부이고, 천 년이 지나면 아내이다(21:9-10). … 결혼 날에는 신랑과 신부이고, 다음 날에는 남편과 아내이다. 천 년 동안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 결혼 날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결혼 잔치를 누릴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풀고 자기 노예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도록 부른 어떤 왕과 같다고 말씀하셨다(22:2-4).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양의 결혼 날과 어린양의 결혼 잔치가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7, 9절). 이것은 신약이 잔치로 시작할 뿐 아니라 잔치로 끝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는 어린양의 결혼 잔치,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결혼 잔치를 미리 누린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믿는 이들은 어린양의 결혼 잔치를 누릴 것이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몫을 누릴 것이다. … 그때에는 주님 자신께서 이기는 이들이 누리기 위한 특별한 몫이 되실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24, 143-145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단계, 1권, 17과*

**10/19 주일**

***아침의 누림***

1. **벧후 3:8**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2. **롬 1:7**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3.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4. **고전 3:12-13**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3**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5. **엡 4: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6.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